



오리아빠 박상용 관장의 행복한 오리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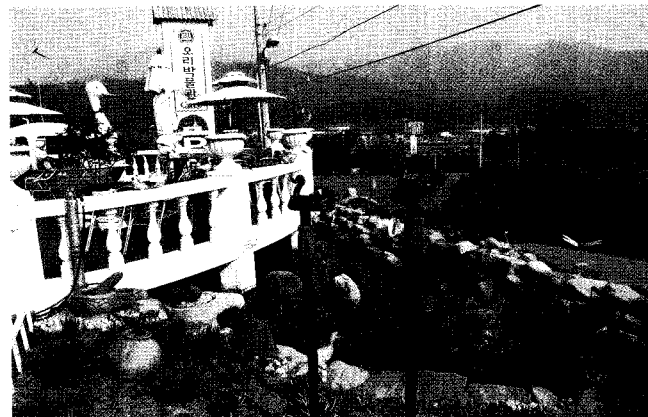
사진·글 |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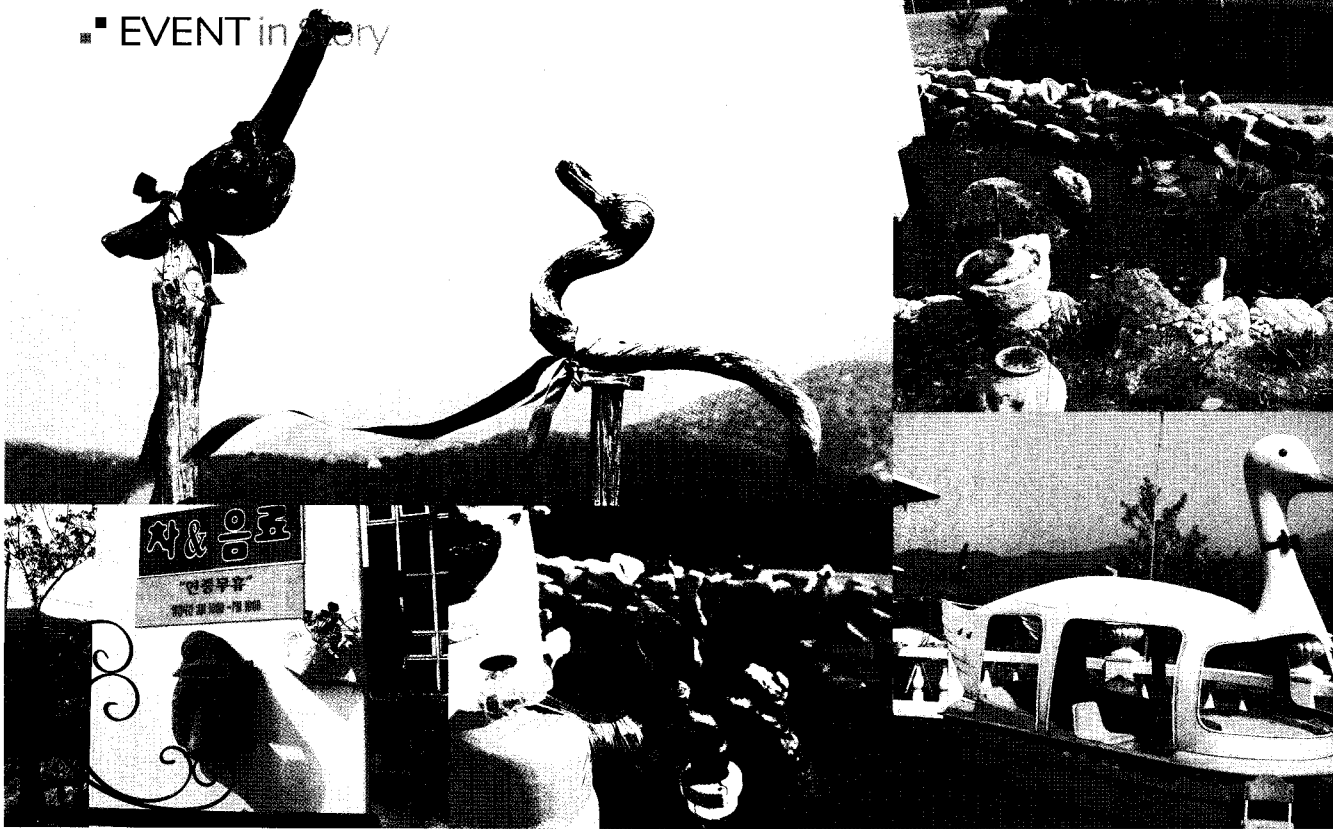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고 하였다. 누구보다도 오리를 좋아하고 즐겨 오리박물관까지 운영하게 되었다는 박상용 관장. 그만의 특별한 오리 즐기는 법을 알아보자!

자칭 오리아빠가 운영하는 박물관. '오리고기를 파는 식당이나 오리 모형 몇 가지 전시한 곳이겠지' 라는 생각은 박물관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싹 사라졌다. 다양한 크기의 오리 장식품, 그림은 물론이고 직접 만든 솟대 등이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하였다. 봄의 향기를 잔뜩 머금은 정원의 꽃들과 어우러진 오리 모형들과 유원지에서나 볼 법한 오리보트는 이곳이 진정한 '오리 마을' 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박물관 대문에서 바로 보이는 흙으로 구워 만든 오리

우체통과 오리풍향계를 따라 들어오면 오리모양 수도꼭지가 인상적인 연못가에서는 모형오리가 한가로이





① 오리 솟대 ② 오리 토기우체통 ③ 오리 수도꼭지 ④ 오리 분수대 ⑤ 오리 보트 ⑥ 오리박물관 내부전경 ⑦ 오리 분수



노닐며, 오리 잡는 개로 알려진 귀여운 코카스파니엘이 오리 박물관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 비록 살아 있는 오리를 만나볼 수는 없지만 오리를 사냥할 때 사용하는 '진짜 오리' 같은 '가짜 오리'가 방문객들을 맞아주고 있었다.

근 20년 전부터 민속품과 골동품 수집을 하다가 특이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소장하지 않으며, 의미가 좋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오리"라는 주제로 수집을 시작했다는 박상용 관장의 분업은 소방안전 설

비업이었다. "처음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것부터 모으기 시작했어요."라며 예쁜 오리 그림이 그려진 소화기를 보여주었다. "이건 오리 솟대예요. 긴 장대 위에 오리 장식이 있죠? 오리가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저쪽에 상여에도 오리가 있잖아요. 하늘에 함께 올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오리 박물관 2층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오리들. 수집품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의 눈은 반짝반짝 빛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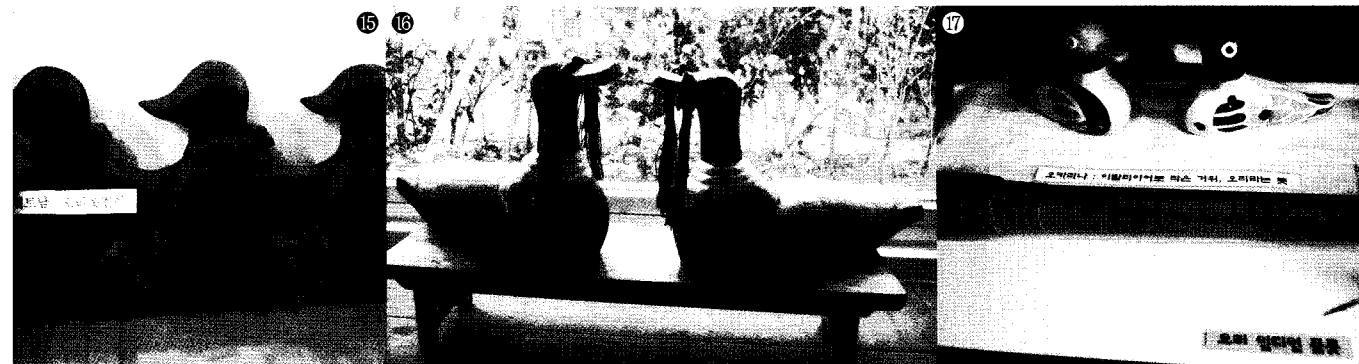
8 오리조형물과 서랍장 9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오리작품들 10 오리 소화기 11 형형색색의 오리 솃대들 12 오리 목공예품 13 오리모양 도자기 공예품들 14 오리가 새겨진 각국 주화들 15 오리모양 옷걸이 16 혼례식 때 사용한 목안 17 오카리나와 오리 인디언 플룻

오리 모양의 도자기와 목 공예품 및 오리가 새겨진 각국의 주화 및 북한의 우표들, 오리 소리를 내는 피리뿐 만 아니라 전통 혼례식 때 신랑이 가지고 갔다는 나무 기러기(목안)와 오리보, 베트남 산 오리 모양 옷걸이, 필리핀 야자수로 만든 오리 모형 등 크기 불문, 국적 불문의 오리 수집품들은 벌써 3000점을 훌쩍 넘겨 정확한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상황.

박 관장은 나무나 폐지 등의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손수 오리 솃대와 오리 모형 토우도 만든다고 한다. 40

평 남짓의 오리 박물관 전시장은 그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관장은 주변 여기저기를 둘러보면 생각보다 오리와 관련된 것들이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조선시대 지리학자인 한명회 선생의 호(號)이자 서울 지역 지명인 압구정의 압이 오리 압(鴨)이고, 은행나무의 잎사귀가 오리의 발처럼 생겼다고 하여 압각수(鴨脚樹)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 오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내며, 전시실 한 칸에 멈춰선





18 박 관장의 오카리나 연주시범 19 선반에 놓여 있는 오리장식품 20 오리인형 21 오리 도자기 22 탁본 등 체험학습
23 귀여운 오리안경 24 한줄로 늘어난 오리 장난감

그는 오카리나(ocarina)가 이탈리아어로 작은 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며 오카리나를 직접 연주해 보였다. 오리가 받치고 있는 형상의 우리나라 전통 악기 특경에 관한 설명도 어느 전문가 못지않은 그는 오리 박사임에 틀림없었다.

현재 오리 박물관에서는 오리 탁본 만들기와 오리 종이접기, 오리 그림 색칠하기와 같이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귀엽고 친숙한 오리 캐릭터나 인형으로 아이들이 오리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면서 어른들에게는 따뜻한 봄 햇살과 향긋한 차를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오리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며 이곳을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제 작은 소망이죠.”라며 포부를 밝힌 그의 표정에서 남다른 오리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박상용 관장과의 미니 인터뷰

Q· 어떻게 오리를 테마로 수집을 하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A· 처음에는 골동품과 민속품을 모았었어요. 그러다가 특별한 것을 생각해낸 것이 오리였습니다. 사랑이나 금슬, 평안을 기원하는 좋은 의미도 가진데다 또 크기도 적당하잖아요. (웃음) 민약코끼리나 소가 테마였다면 이렇게까지 모으지 못했을 거예요.

Q·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에 두고 운영하시나요?

A·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모은 수집품 중에는 목수들이 쓰는 먹통이나 대패, 소 죽거리에서 나온 나무들로 만든 것들도 있어요. 옛 맛을 느낄 수 있는 민속 공예품들이죠. 이처럼 상품과 문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창의력도 심어줄 수 있도록 희귀한 작품들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유명 작가의 예술품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지인에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가끔씩 여기 오신 분들



25 박상용 관장과의 인터뷰 모습 26 협회 임직원 기념사진 촬영 27 협회에서 준비한 기념품 증정 28 1층 카페의 운치있는 아외테라스

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Q· 주변 분들이나 방문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A· 입소문을 통해 찾아오신 분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규모에 놀라기도 하세요. 오리 식당인줄 알고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는 걸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오리 박물관을 운영한다고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줘도 와보지 전까지는 카페에 인테리어용으로 오리장식 조금 갖다 놓고 오리박물관이라고 하겠거니 생각들 해요.

Q· 박물관 관람료도 받지 않으시고, 계속 수집품을 모으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A· 사실 매달 자금난에 힘들지요. 그래도 이걸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좋아서 하는 건데요. 그리고 든든한 지원군인 가족이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박 관장이 오리박물관을 개장하기 전에는 건축사업으로 자수성가한 CEO였다.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사업

도 뒤로 한 채 스스로 진정 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모험일 지도 모른다.

행복한 그의 미소가 봄 햇살 때문인지 참 따뜻해보였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저 쪽 벽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제 딸아이가 그린 거예요. 아직 중학생인데 참 잘 그렸죠?” 오리아빠와 오리엄마 그리고 아빠만큼 오리를 사랑하는 오리 딸까지. 오리 가족의 행복한 오리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